

‘포교 매뉴얼’ 작성 등 방안 논의

사찰 주지스님의 포교활동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방법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활동 관련 주지 평가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원 스님은 기초발제를 통해 “종단에서는 포교활동을 주지 인사에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있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오늘이 자리에서는 주지 포교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응철 교수

주지 포교활동 평가·제도마련 공청회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오늘날 신도들은 사찰 주지스님에게 수행·설법·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 조직화된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역시 “포교는 주지스님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라며 “초임주지에게 주지소인 매뉴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포교 활동 관련 주지 평가 및 인사 반영 방법’을 발제한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사산 부사 주지)은 “철저한 출가문중 중심으로만 본사와 교구본사가 운영되어 온 지금, 조계종의 조직은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형조직이었다”며 “사찰과 교구조직에 대한 과감한 통합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각 본사에서 교구내의 시·구단위로 역할 분담을 지칭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도심에 거점사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사찰의 소임자에 대해 ▲어린이·학생·대학생 청년법회 활동 ▲신

도회의 실질적인 운영 ▲포교인력(종무원, 포교사) 변화 현황 ▲포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현황 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혜경 스님(경화 전 등사 주지)은 “주지 임명 후 2-3년이 지나면 중도 평가를 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재임기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전 스님(수원 용주사 포교국장)은 “포교 활동 매뉴얼을 만든다면, 포교 관련 연구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활동 중인 사찰 중 포교거점이 될 만한 사찰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원로회의 2기 출범 일우 스님 의장 재선임

태고종 원로회의 2기가 출범했다. 1대 원로회장을 맡은 일우 스님이 의장에 재선임됐고, 부의장에는 혜종 스님과 덕화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은 11월 7일 한국불교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원로회의 제2기 구성 및 제7회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종현 개성안 인준에 관한 사항’ ‘원로회의 운영 및 현안 협의에 관한 사항’ ‘종단 주요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로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위상을 되찾고, 이를 후학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운영 및 현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김주영 기자

조계사 주지인사 거센 후폭풍

신도회 임명철회 촉구 묵언시위·노현 스님 단식 돌입

조계종이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원학 스님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이번 인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데다 현 총무부장이 직영사찰 주지를 겸직했다는 점 때문이다.

주지 임명장이 수여된 11월 13일, 조계사 신도회(회장 이연숙)는 즉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면담했고, 다음 날인 14일 주지 임명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총무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15일에는 조계사 큰살림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 임명철회와 원학 스님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연숙 신도회장은 “조계사 부주지를 맡고 있던 1998년, 정화개혁회의에 참여해 별반 조치를 받고 최근 복권된 원학 스님을 주지

로 임명한 것은 신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계사 주지스님 해임을 유보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중무행정을 마비시킨 총무부장 원학 스님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도회는 주지 임명 다음 날인 11월 14일 당시 원학 스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조계사를 찾아와 신도들을 설득하는 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회는 16일 조계사 경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묵언시위를 벌치고 있다. 이영우 신도회부회장은 “묵언시위에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지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장군 등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화사 태백선원장 노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용퇴를 촉구하며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여수령 기자

조계사 원학·선본사 향적 스님 주지 임명

국장급 등 대규모 인사 불교신문사장 헤자 스님



조계종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1월 13일 직영사찰 주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팔공산 선본사(갯바위) 주지에 향적 스님(前 불교신문사장)을 임명했다. 불교신문사장 헤자 스님(도선사 주지)이 임명됐다.

또한 같은 날 총무원 교역직 국장급 인사도 진행됐다. 기획국장에는 미등 스님, 사회국장에 도은 스님, 조사국장에 현종 스님, 상임감찰에 덕현 스님, 조사과장에 범성 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진경 스님이 각각 신규 임명됐다. 전 재정국장 덕관 스님은 감사국장으로, 전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재정국장으로, 전 감사국장 경우 스님은 호법국장으로, 전 조사과장 지수 스님은 호법과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국장이라는 소임은 총무원의 중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이번 인사에 대해 “승려로서의 품위유지를 하고 있는지, 성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와 선본사 등 직영사찰 주지 인사에 대해서는 “4년 임기를 넘긴 사찰 주지의 교체 필요성을 느껴 인사를 하게 됐다”며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가 특정 문중의 스님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실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학 스님은 “이번에 실권되지는 못했지만, 국장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채용하지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11월 13일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마곡사의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범용 스님은 “임부보자를 모두 총무원장 이하 스님들의 뜻에 따라 잡을 없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합과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마곡사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된 범용 스님은 1965년 마곡사 석봉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선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11월 5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범용 스님.

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범용 스님의 당선 무효 소청 심판을 청구했던 원혜 스님은 12일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들러 청구취하서를 제출했다. 여수령 기자

국제선센터 부지선정 놓고 ‘삐걱’

“조계사와 협의 없이 결정” 신도회 반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이하 문화사업단)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선(禪)센터’가 부지선정에서부터 잡음을 빚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11월 7일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선센터 건립 부지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며 “올해부터 3년간 국고지원금 1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5층, 지상 5층의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2110㎡(638평) 규모의 신정동 부지가 서울 조계사 소유라는 것. 조계사는 1992년 35억에 신정동 부지를 구입했다.

부지 선정 소식을 들은 조계사 신도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신도회는 11월 1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정동 부지는 조계사 소유임에도 총무원이 조계사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해월 인쇄인·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6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ch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chia.com
FAX (02)737-0696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대전총부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료감면 및 그 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선), 단체 사찰순례, 강요,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감독: 김동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비로전 대비로전은 화재에 대비한 열 감지기, 지진에 대비한 진동 측정기 등 첨단장비가 설치되어 유사시 불단 위에 모셔진 불상이 자동감지에 의해 지하 6m 깊이의 발실로 내려보내 안전하게 두분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특수 공법을 도입하였다. 발실 출입구는 뜨거운 열이나 증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2중, 3중의 차단장치를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보수공사 등 필요시에는 수동 조작도 가능하다.

국운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해신사 『대비로전 大毘盧殿』낙성대법회

만산홍업 만추지절에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신사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동형쌍불 목조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한 『대비로전 大毘盧殿』낙성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비로자나불이 상징하는 광명과 통합의 의미를 담아 국운융창과 평화통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대비로전 낙성대법회에 동참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551(2007)년 11월 24일 (토) 오후 1시
- 장소: 해신사 대비로전
- 비로자나 광명 등 접수: 1만원(1일등)
- 대비로전 낙성기념 7일기도: 동참금 3만원
- 대비로전 단청불사 접수 중
- 동참계좌번호: 농협 843174-51-012494(예금주: 해인사)
- 문 의: 종합접수실 055)934-3105~6, 팩 스: 055)934-3107



법보종찰 해신사 주지 현응 합장